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신문

총기 50년  
2021년 7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5년 제 260 호

하반기 49일 불공회향

해탈절 종령 법어



종령 법공 대종사

하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의 회향을 겸하여 봉행하는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광명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탈절 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49일 불공의 해탈공덕을 더욱 극대화하는 길은 우리 자신이 본의(本義)에 상응하는 실천을 이행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은 곧 사대은혜(四大恩惠)를 갚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은(報恩)에 있습니다. 사대은혜란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국가의 은혜, 삼보(三寶)의 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이라 하면 네 가지 은혜를 모두 다 입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은 살아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것이며, 선망부모는 좋은 날에 극락왕생을 발

## 사대은혜(四大恩惠) 보은이 불공이자 수행

49일간의 장기 불공을 무사히 마치게 됨은 승속이 일체가 되어 깊은 신심과 정진력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진 수행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에 창궐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전 세계 인류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진인행자들도 고통의 피로감과 불편함도 매우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49일간의 장기 불공 속에서도 정진과 불퇴전의 신심으로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종도(宗徒)들의 무진서원과 정진에 커다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지중은 49일 불공 회향일인 7월 15일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선망부모의 죄업을 씻어드리는 날로 정하여 해탈절이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해탈절은 일체중생의 인생고(人生苦)를 여의는 것은 물론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 소멸을 기원하고 있으므로, 호국안민의 본의(本義)가 담긴 해

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중생의 은혜를 갚는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며, 국가의 은혜를 갚는 길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삼보의 은혜를 갚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대은혜를 갚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공이자 수행입니다. 나아가 나의 업장을 소멸하고 일체 번뇌를 여의는 해탈의 실천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일의 49일 불공 회향에 즈음하여 올리는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고통에 빠진 선망부모와 망자의 해탈은 물론이요, 나아가 일체중생이 각종 질병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49일 불공을 회향하며, 선망부모는 해탈하여 극락왕생하고, 모든 종도들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이루며, 전 세계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 50년 7월 15일  
종령 법공 합장

## “창종 50주년 사업 순항, 여법하게 회향 서원”

통리원장 인선 정사, 6월 28일 교계 기자 간담회 개최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교계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사진=전서호 기자

“제 19대 통리원은 그동안 창종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각 영역 별로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5월 통리원과 종조전 및 본산 중창불사 등 정비 사업을 마무리 했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사부대중과 함께 모든 사업이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창종 50주년 기념사업 및 향후 계획을 밝히는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선 정사는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편찬 △불교총지중 50년사 발간 △창종 50년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남은 임기 동안 창종 50년 기념사업의 여법한 회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관련 기사 2면>

종조 원정 대성사의 삶과 사상을 담은 첫 일대기가 최근 2년여 끝에 완성됨에 따라 종

단 내 감수가 끝나는 대로 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대기는 총지교도들의 마음을 모아 설판으로 제작된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한 시대를 치열히 살아간 밀교 수행자이자 시대의 모순과 아픔을 종교적으로 구제하려 한 선각자의 참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창종의 역사를 통해 총지종이 세상에 전하려 하는 가르침과 종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발간에 대해 설명했다.

총지종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총지종 50년사는 오는 12월 6일 발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종단의 역사는 물론 문화, 정책, 포교, 교육 사회공헌 등 그간의 발전과정을 기록과 사진, 인터뷰 등 충실하고 객관적인 기술을 통해 종단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도 작업 중에 있다.

50년간의 연혁사, 사원사, 부문사를 기본 카테고리 하에, 총지종 50주년 기념 좌담, 총지뮤지엄, 총지메시지, 연표, 사원소개, 역

대 종령 및 통리원장, 헌 스승, 조직도, 찬불가 등이 총 300페이지에 걸쳐 수록될 예정이다.

종단과 불교TV가 공동으로 제작 중인 50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도 제작 막바지에 들어섰다. 불교TV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지난 1년여간 불교총지종이 주관하는 다양한 법회를 비롯하여 불공, 행사, 회의 등 현장을 생생히 기록해 왔다.

금번 다큐멘터리는 올 12월 24일 창교절을 전후로 불교TV에 특별 방영될 예정이며, 5분 내외의 단편 영상물로도 함께 만들어져 50주년 기념행사는 물론 SNS,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불교총지종 홍보에 다방면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박재원 기자

### 알림

####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방생법회)

교구 차원의 법회는 없으며, 지역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준수하여, 각 사원의 주교 재량으로 진행 또는 생략합니다.

### 종/조/법/어

부처님의 가지원력 조상불이 입게 하여 자손만대 드리우게 추복불사 할지니라

### 지 면 안 내

4면 심뽀이야기 20 5면 대일경과 금강정경 ①  
6,7면 특별기고/환경문제의 불교적 해법

##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해탈절 법회안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_ 총기 50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 사원

※ 지자체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 “종교는 도움의 손길 미치지 못하는 곳 보듬어야”

## 코로나로 국제재가불자대회 취소, 개인적으로 아쉬워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지난 6월 28일 교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통리원과 본산 중창불사 후 종단에 대한 교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 창종 50주년 기념사업을 비롯한 제 19대 통리원 종책사업에 대해 통리원장과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오갔다. 간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사진=통리원장 인선 정사

법보신문 윤태훈 기자=제 19대 통리원장 취임시부터 추진 중인 50주년 기념사업을 비롯한 종책사업에 대해 현재 어떤 것들이 완료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원정대성사 진영을 새롭게 조성했다. 올해 1월 29일 종조 탄신대제에 맞추어 봉안 불사를 했다. 또 홍보용 다큐멘터리를 제작중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면 수계법회도 봉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계식은 새롭게 4단계로 품계를 나눠서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한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의식과 의례를 재정비해 ‘총기 50년 불사법요’를 개정, 발간했다. 젊은 세대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밀교신문 김재우 기자=2019년에

제10회 국제재가불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다른 진행사항이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다음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 같다. 예산 책정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결국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 이번 임기 동안에는 아예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BBS불교방송 홍진호 기자=37년 만에 총본산 통리원을 새 단장했다. 올해가 창종 5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 그 의미를 짚어 달라.

통리원 주업무가 일선 포교당인 서원당 지원인 만큼 중앙 불사의 재정적 지원이 힘들어 그동안 중창이 어려웠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누수

현상이 생기는 등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창종 50주년을 맞아 종단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미를 살려 불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BTN 불교TV 하경목 기자=총지종 본산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교회나 종단 발전에 있어 기대하시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

공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4년 전 종단이 총지사 도로 앞의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 구조 덕분에 통로가 생겨서 그 전엔 건물을 돌아가야 했던 주민들이 편리하게 오가고 있다. 이번 공사를 통해 불교총지종과 총지사가 전통불교사찰임을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 같다. 여기에 선제적인 교화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불교 김원우 기자=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기관의 수가 약 두 배 정도 늘었다.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여쭙고 싶다.

승단 내에서도, 대외적으로 인터뷰가 있을 때도 항상 주장해온 종교의 역할은 사회의 어둠과 어려운 곳,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보듬어주고 잘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종단의 설립은 내부 수익사업으로 부족하나 채우고 있다. 교도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자기 업 닦고 복 짓기 위해서 회사하는 금액은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다.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며, 그래야 종교는 살아남는다고 생각이 든다. 종단의 사회복지재단이 각 지자체로부터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위탁받아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현재 11곳 정도를 맡고 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있다면 최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종단의 소임이다.

현대불교 김주일 기자=반세기를 돌아서 앞으로 백 년을 향해서 가는 시점에 와있다. 마지막으로 종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해 달라.

첫째는 승직자로서 자질을 키우고 개인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둘째는 종단의 재정적인 투명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남들이 돌보지 않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종단도 살아남고 앞으로의 불교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 정리=전서호 기자



# 새 「불사법요」 전국 사원에 배포

## ‘처처불공’을 위한 휴대용도 제작

총기 50년 개정된 「불사법요」가 완성돼 전국 사원에 배포됐다.

불사법요를 관장하는 불사법요위원회(위원장: 법경 정사)가 1년 여 간의 연구와 논의를 마무리한 끝에 지난 춘계강공에서 전국 스승들에게 「스승용 불사법요」를 우선 배포한 이래 교도용으로 새롭게 편찬되었다. 「불사법요」는 처음 발행 후 총기 44년(2015년) 1차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그 후로 6년 만이다.

이번에 개정된 불사법요는 △대중 불사 법요 △동참불사 법요 △진호 국가불사 의례 △영식천도불사 법요 등 전통 밀교 불사 의식인 육자의례를 중심에 두고 사원과 스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던 염송 절차와 방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였으며,



집공자와 동참자의 독송과 합송을 정확히 구분했다.

이와 함께 교도가 평상시 염송할 수 있도록 휴대용 「불사법요」도 제작되어 배포됐다. 실천서원, 참회, 오대서원, 무상계와 유가삼밀을 비롯한 천수경, 천지팔양신주경, 반야심경 등이 수록되었으며, 종단의 상징인 만다라를 삽입하여, 교도들의 환희심과 신심을 높일도록 디자인 하였다.

## 내마음의 등불

삼밀사 묘흥 전수 편

자기(自己) 마음 깨치면  
진리(眞理) 깨친 것이다

진리(眞理)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마음을 깨치면 곧 진리(眞理)를 깨친 것이라, 자기(自己)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시 뒤틀 일체 사물(事物)을 알려고 구(求)할 것인가. 다른 이의 마음을 찾고 알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自己) 마음을 알아야 한다. (집착(執着)과 선악(善惡), 미혹(迷惑)과 해탈(解脫), 청정(淸淨) 여부(與否) 등(等)으로 알아야 한다.)

『종조법설집』 193쪽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삼밀사 묘흥 전수님은 단행사 지흥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2차 이사회 개최

기후·환경위기 극복, 근대불교인 선양 사업 등 추진



종단협이 지난 6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 이하 종단협)이 지난 6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단협은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극복 계획을 추진기로 했다. 출·재가불자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여 탄소 중립과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세미나

및 학술강연회 개최, 기후위기 대응 교육 시행, 사찰환경 개선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불교적인 이념에 부합하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날 전문 위원으로는 당연직 위원장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이 선출되었으며, 승가위원으로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 등이 선임되었다.

또한 근대불교인 선양사업도 추진하여 조선시대 말부터 일제강점

기 당시 항일투쟁을 주도하거나 문화·체육활동을 이끌었던 근대 불교 지식인의 업적을 알리고 정부로부터 추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며, 올해 학회 전문가들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미나를 통해 후보자 12명을 선정하여 ‘근대불교인명사전(가칭)’을 발간할 계획이라 밝혔다.

종단협은 제8차 한국불교지도자 성지순례를 9월 중에 울릉도와 독도에서 진행하며, 참석인원은 각 종단 포함 50명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 10월에 예정되어있던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는 2022년으로 연기되었으며, 2022년 4월 중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을 상임 이사로, 삼존종 신임 총무위원장 해불 스님이 이사로 임원 변경되었다.

## 통리원장 인선 정사 이사직 연임

6월 11일, BBS 불교방송 이사회 개최

BBS 불교방송이 코로나로 순연되었던 제111차 이사회를 지난 6월 11일 마포구 다보원에서 개최했다.

새 이사 선임의 건과 방송 포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사회에서는 현 BBS 이사인 통리원장 인선 정사의 연임을 확정 지었으며,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장 화평 스님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또 2020년 결산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결산안 승인의 건 등을 안건 상정 원안대로 결의했다.

이선재 BBS 사장은 “하나의 프로



BBS 불교방송 이사회가 지난 6월 11일 다보원에서 열렸다.

그램을 라디오와 TV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송출하는 원소스 멀티유

저를 통한 경영안정과 방송포교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행의 힘

지혜의 눈

문명권마다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 다양  
‘화광동진’ 세계로 나가려는 원력의 소산이어야

6월 22일은 하지(夏至)로 일년 중 양(陽)인 낮이 가장 긴 날로 다음날부터 일음시생(一陰始生)한다고 합니다. 12월 22일경에 이르러 이번에는 반대로 음(陰)인 밤이 가장 긴 날로 다음날부터 일양시생(一陽始生)하여 고대사회에서는 일년의 시작이었습니

다. 그러나 하지와 동지는 하늘의 변화에 해당되고 땅의 변화는 이보다 한 달 정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지는 낮이 가장 길지만 가장 더운 시기는 대략 한 달 뒤인 7월 23일경의 대서(大暑)이고 동지는 밤이 가장 길지만는 가장 추운 시기는 한 달 뒤인 대한(大寒)이 됩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는 대동란(大動亂)의 시기였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회구성원리가 요구되는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낡은 제도와 사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도와 사상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가 바로 혼란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하여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제자백가(諸子百家), 백화제방(百花齊放)으로 표현합니다. 그러한 흐름의 하나로 음양가와 오행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사상은 일종의 자연과학으로 당시의 수준에서 우주와 자연에 대한 나름의 논리적인 설명을 전개하였습니다. 어느 시대의 종교와 사상이든지 우주와 자연

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이론을 배경으로 두르고 자신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음양가와 오행가는 대략 한나라 때에 음양오행으로 통합되고 동중서에 의해 유교의 우주론으로 채택됩니다.

그리고 동중서의 천인상관론(天人相關論)과 재이(災異)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래 음양과 오행은 도가(道家)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교도 같은 이론을 수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음양오행론이 유교의 우주론이자 자연관의 원리로 수용된 사례를 조선 중기의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양오행론이 민간 신앙에도 영향을 주어 성립한 것이 바로 사주(四柱) 명리(命理)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운명의 전개 과정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커서 각 문명권마다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아마도 사주 명리가 가장 논리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신살(神煞)같이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만 사주 명리의 근거인 음양오행론은 당시의 수준이 도달한 과학이론이었기에 나름 논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천간(天干)은 하늘의 기운에 해당하고 지지(地支)는 천간의 기운이 땅에서 펼쳐진 것에 해당합니다. 천과 인이 이렇게 서로 관계(천인상관, 天人相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늘과 인간이 연결되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입니

다. 따라서 사주를 보는 행위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로 다른 종교의 신앙행위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당연히 과학이 발달하여 이전에는 설명되지 않던 수많은 현상들이 해명(解明)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 명리에서 설명하는 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애정운, 금전운, 자녀운, 출세운 등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마도 바뀌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주팔자의 운명은 정해진 것으로 이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단지 미리 알아서 대비한다면 흉한 경우는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더 좋은 것은 수행을 통해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거치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수행을 통해 고(苦)를 고(苦)로 받아들이고 낙(樂)을 낙으로 받아들이는다면 고와 낙이 있되 작용하지 않는 상태인 무화(無化)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요?

사주 명리를 알아보는 것은 이기적 욕망의 충족보다는 아마도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운명과 함께 살아가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세계로 나가려는 원력(願力)의 소산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칼럼리스트 김태원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연명의료 36

법상 정사

## 100세까지 걸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①

사람은 며칠만 못 걸어도 우물 증에 빠지고 건강도 나빠져 폐인이 된다. 노년이 되어서 결국 걸으면 살고, 못 걸으면 죽는다. 100세까지 활발하게 걷게 만들어주는 물리적이면서 정신적인 방법 10가지가 있다.

### 1.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라

한국인의 72.6%는 단백질 섭취가 결핍되어있다. 단백질은 근육, 피부, 장기, 머리카락, 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모든 대사기능이 떨어진다. 또 단백질은 젊음과 정력을 유지하는 성장호르몬, 성호르몬 생성에 관여한다.

중년이 되면 고기를 잘 소화시키지 못해 육류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고기를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식사 전이나 식사 중간에 식초나 레몬을 물에 희석해 마시면 된다. 식초는 위를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

### 2. 청국장을 섭취하라

건강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고기를 잘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 고기 대신 콩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흡수율이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

그래도 식물성 단백질로 부족한

1.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라
2. 청국장을 섭취하라
3. 달걀을 푼 황태 해장국을 섭취하라
4. 매일 같은 시간에 걸아라
5. 매일 스쿼트를 하라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다면 콩보다는 청국장이 좋다.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100g당 17.8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흡수율이 떨어진다(생콩 55%, 삶은 콩 65%). 하지만 이때 청국장을 먹으면 바실러스균에 의해 발효가 되면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생성해 100% 가까이 흡수된다.

### 3. 달걀을 푼 황태 해장국을 섭취하라

황태는 100g당 단백질이 79g이나 되는 단백질의 지존이다. 게다가 단백질의 조성(류신 7.9g, 아이소류신 4.1g, 발린 3.6g)이 좋아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황태 껍질에는 많은 양의 콜라겐이 들어 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의 70%, 관절연골의 53%를 차지하는 성분으로 근육의 탄력을 높여주고, 동맥의 비결이 된다.

### 4. 매일 같은 시간에 걸아라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이다. 일시적으로 몇 번 하는 것은 몸에 이득이 안 된다. 또 하나 강조하자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운동이 자기

6. 집에서 운동화를 신어라
7.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
8.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
9. 신변을 정리해야 한다
10. 노인의 절약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것으로 받아들여 건강이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인다.

아침에 걷든, 저녁에 걷든 상관 없다. 일정한 시간이 중요하다. 빨리 걸을 필요도 없다. 산책하듯 30분 정도 걷는 것으로 충분하다. 무릎이 아파 잘 못 걷는데도 걸어야 할까? 무릎이 아파 얼마 못 걸으면 몇 번으로 나눠 걸어도 상관없다.

### 5. 매일 스쿼트를 하라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수명과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40대가 넘어서면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하니, 100세가 되면 근육의 40%밖에 안 남게 된다.

필사적으로 근육량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불끈불끈한 팔근육이나 복근은 미용을 위한 사치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우리 근육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심보이야기 20

법선 정사

## 존재의 세 방식, 삼성(三性)

원성실성,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우리는 존재의 세 가지 상태를 원성실성, 변계소집성, 의타기성으로 설명하였다. 집착을 버린 본래의 있는 모습, 진여의 모습을 보기 위해 따지고, 분석하고, 사랑하고, 분별하는 잘못된 집착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생각과 모습은 모두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의존하여 이루어진 허망한 모습임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타기성에 의해서 원성실성이 밝혀지고, 원성실성은 의타기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관계이기

유식학 전체가 그러하듯이, 삼성설의 취지도 결국은 세계를 왜곡해서 보지 않을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자는 데 있다. 삼성설은 모든 것이 무(無)일 뿐이거나 허구일 뿐임을 밝히려는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진실로서 존재하는 세계가 왜 진실인 그대로 드러나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이론이다.

우리는 간혹 역지를 부리거나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역지나 착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감정에 치우쳐 사실이라고 착신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치상으로는

풍요는 결핍으로 인한 마음 고통을 겪지 않으려는 데서 추구되는 것이며, 그 마음의 고통을 달리 표현하여 번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므로,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수행의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번뇌를 제거하는 노력이다. 유식학은 번뇌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의식 활동 자체에 있음을 면밀하게 파악해, 의식 활동이 어떻게

## 삼성, 수행으로 성불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 가르침 수행은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번뇌를 제거하는 노력

때문에 서로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불일부이, 不一不異). 이렇기 때문에 삼성은 유식에서 심식의 수행을 통하여 성불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가르침으로 설명되며, 심식의 변계소집성의 인식작용을 벗어난 원성실성의 획득이라는 유식의 수행의 목표를 설정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변계소집의 모습을 사실 또는 실체라고 확신했으로써, 그 모습이 의타기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한 모습인 원성실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원성실성이라 하고, 허망분별의 실상을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의타기성은 변계소집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허망한 것이나 거짓은 아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라는 의존 관계에서 성립한다.

그렇지 않은 것, 없는 것을 어떤 감정에 빠져서 그렇다거나 있다고 믿는다. 변계소집성이 바로 이와 같다.

우리가 간혹 무지하다는 것은 냉철한 사고를 지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다 보면 사태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 이치로 따져 보면 엄연한 사실, 엄연히 있는 것을 상상이나 감성에 의존하여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예 없다고 지나치기도 한다.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이 같은 습관의 대상을 말한다.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진리에 비추어 보면 엄연한 진실이지만, 집착이나 고정관념에 싸인 마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아예 그런 것이 없는 양 무시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멀어지고 허망분별에서 헤어 나지 못하게 된다.

삼성은 결국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안락한 삶이 비록 물질적 풍요라고 할지라도, 그

게 번뇌로 생성되고 발동하는지를 해명하는 것으로 번뇌 극복의 수행을 유도한다. 다시 말하면 유식이라는 진실한 모습을 수긍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이며, 이후 수행의 목표는 번뇌로서 발동하던 느낌과 생각과 알 등의 모든 의식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비취내는 순수한 상태로 바뀌게 하는 것이다.

세상의 존재는 이처럼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단지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내가 그렇게 보았다고 해서 내가 본 것이 틀림없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없다. 대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우리들은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의 세상은 우리가 본 것처럼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덧칠한다. 내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는 않는가? 내가 본 세상은 진실한 세상인지의 문을 가져볼 일이다.

##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차시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實地)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 편 중)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대일경의 순수한 실체

불교총지종은 총지종의 헌법에 해당하는 ‘종헌(宗憲)’에 소의경전을 밝혀두고 있다. 그 소의경전은 다음과 같다.

- 1.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 (大毘盧那成佛神變加持經)
- 2. 금강정경(金剛頂經)
- 3. 대승장엄보왕경 (大乘莊嚴寶王經)
- 4.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大乘理趣六波羅密多經)

이 중 밀교사상의 이론적 원리[教相]를 밝힌 『대일경(大日經)』과 실천법의 체계를 세운 『금강정경(金剛頂經)』은 밀교의 근본경전들이다. 이 양부대경(兩部大經)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대일경』은 대당(大唐) 개원 12~13년에 걸쳐 낙양의 대복선사(大福先寺)에서 선무외삼장(善無畏三藏)이 번역한 것이다. 『대일경』 7권 36품인데, 전6권 31품은 사상적 방면을 밝힌 것이고, 제7권 5품은 이에 근거한 염송공양(念誦供養) 행사 차례(行次第)를 설명한 것이다. 그 전6권 31품 가운데 제1품은 「입진언문주심품(入眞言門住心品)」으로 근본불인 대일여래의 깨달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설명하고, 제2품 「구연품(具緣品)」 이하에서는 실제 수행과 관련 된 내용이 설해진다. 「주심품」으로 대비로자나, 즉 대일여래의 성불의 경지를 설파한 것이라면, 제2품 이하는 신변가지(神變加持)로써 중생을 거두어 보살과 교화하는(衆生攝化)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라는 경의 제목 속에 전체 경의 요령(要領)이 유감없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 중 밀교사상의 이론적 원리[教相]를 밝힌 『대일경(大日經)』과 실천법의 체계를 세운 『금강정경(金剛頂經)』은 밀교의 근본경전들이다. 이 양부대경(兩部大經)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대일경』은 대당(大唐) 개원 12~13년에 걸쳐 낙양의 대복선사(大福先寺)에서 선무외삼장(善無畏三藏)이 번역한 것이다. 『대일경』 7권 36품인데, 전6권 31품은 사상적 방면을 밝힌 것이고, 제7권 5품은 이에 근거한 염송공양(念誦供養) 행사 차례(行次第)를 설명한 것이다. 그 전6권 31품 가운데 제1품은 「입진언문주심품(入眞言門住心品)」으로 근본불인 대일여래의 깨달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설명하고, 제2품 「구연품(具緣品)」 이하에서는 실제 수행과 관련 된 내용이 설해진다. 「주심품」으로 대비로자나, 즉 대일여래의 성불의 경지를 설파한 것이라면, 제2품 이하는 신변가지(神變加持)로써 중생을 거두어 보살과 교화하는(衆生攝化)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라는 경의 제목 속에 전체 경의 요령(要領)이 유감없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히 설명하고, 제2품 「구연품(具緣品)」 이하에서는 실제 수행과 관련 된 내용이 설해진다. 「주심품」으로 대비로자나, 즉 대일여래의 성불의 경지를 설파한 것이라면, 제2품 이하는 신변가지(神變加持)로써 중생을 거두어 보살과 교화하는(衆生攝化)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라는 경의 제목 속에 전체 경의 요령(要領)이 유감없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대비로자나의 실체

『대일경』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대비로자나, 즉 대일여래 그 자체이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 항상 광명을 발하여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것을 살려서 기르고 있는 것과 같이, 부처님이 모든 것을 관철하고 일체를 살리고 먹이며 기르고 있는 것이다. 이 대일여래가 일체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여도 우리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다. 즉 대일여래가 이 개체를 통하여 살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일경』에 부처님께서 ‘나는 일체의 본초(本初), ①시초, 근본, 근원 ②차별을 떠난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성불(成佛)의 묘상(妙相)

그 대일여래의 자증체험 경지를 ‘성불’ 혹은 ‘성도’라고도 한다. 그것은 모든 대립을 초월하여 일체의 것을 포섭하며 모든 것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고 기본이 되어 일체의 것에 호소하여 중생의 본심을 자극하고 계발하게 된다. 이에 중생은 대일여래의 모태로 돌아가고자 하며, 보리 즉 깨달음을 회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탐심이라든가 분노심이라든가 고양이의 마음이라든가 60심을 넘어서 점차 출세간의 마음이 생긴다. 출세간의 마음속에서도 저급한 것을 버리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향상되어 진급해 간다. 이에 승의(勝義)의 보리심이라고도 하고, 심속생(心續生)의 보리심이라고도 한다. 『대일경』에는 ‘심속생의 상(相)은 제불의 대비밀로서 외도는 알 수 없는 바이다’라고 설파하고 있다.

신변(神變)의 대비(大悲)

이리하여 본유(本有)의 보리심의 뿌리에는 일체를 살려 기르는 천지화육(天地化育)의 자비의 힘이 흐르고 있다. 태양이 바른 것과 옳지

못한 것에도, 부(富)한 것과 가난한 것에도 잠시의 격의 없이 이를 비추듯이, 대일여래는 자비로운 빛으로 물(物) 속에 머물면서 물(物)과 함께 살고 물(物)과 함께 흐르며 일체를 동정(同情)하고 동감(同感)하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대비이자 신변의 힘이다. 이 신변의 힘으로 전지만유 도처에 무진(無盡)의 모습을 나타내며 무진의 설법을 이루며, 모든 내심(內心)의 움직임을 일체의 것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 신(身)과 어(語)와 의(意)의 삼무진장엄(三無盡莊嚴)의 활동이 대일여래의 유희신변(遊戲神變)이며, 이것이 우주생명으로서의 진실의 움직임이다. 이 진실의 움직임에 동화되어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의 삼업을 조절하고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대비이며, 보리 곧 깨달음을 견실히 하는 데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를 『대일경』에는 ‘대비를 근(根)으로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대비이자 신변의 힘이다. 이 신변의 힘으로 전지만유 도처에 무진(無盡)의 모습을 나타내며 무진의 설법을 이루며, 모든 내심(內心)의 움직임을 일체의 것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 신(身)과 어(語)와 의(意)의 삼무진장엄(三無盡莊嚴)의 활동이 대일여래의 유희신변(遊戲神變)이며, 이것이 우주생명으로서의 진실의 움직임이다. 이 진실의 움직임에 동화되어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의 삼업을 조절하고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대비이며, 보리 곧 깨달음을 견실히 하는 데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를 『대일경』에는 ‘대비를 근(根)으로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가지(加持)의 방편

참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 보면 일사일물(一事一物) 무엇 하나도 대일여래의 모습이며, 설법 아닌 것이 없다. 이는 또한 자기 마음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심안(心眼)을 뜨

지 못한 범속한 사람에게는, 이 세계는 흙덩이·나무·돌 등의 집적(集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들 범속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인(印)·진언(眞言)·삼마야형(三摩耶形)·만다라(曼荼羅)를 설파하고, 이를 통해 우주의 실상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대일여래가 항상 신력(神力)을 가(加)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信受] 파악하는 태도를 취할 때, 부처님의 신력은 자연스럽 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그 사람을 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육체의 눈, 육체의 귀를 통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것을 가지(加持)라고 하는 것이다. 즉 ‘불일(佛日)의 그림자가 중생의 심수(心水)에 나타나는 것을 가(加)라 하고, 행자의 심수(心水)에 의해 불일을 느끼는 것을 지(持)’라 한다. 이러한 가지의 힘으로 말하자면 문자로 하는 진언 자체가 문자불(文字佛)로서의 법문신(法門身)이 되고, 인(印) 자체가 사상불(事象佛)로서의 삼마야신(三摩耶身)이 되며, 빛어 만들어지거나 쇠불이를 녹여 만들거나 조각된 형상 자체가 인체불(人體佛)로서의 갈마신(羯磨身)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대일여래의 표현인 동시에, 이 가지력에 의해 신앙

이 없는 것들인 일개의 목적에 지나지 않는 이상 그 자체가 즉시 진불(眞佛)로서 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일경』의 제2품 이하에는 인(印)·진언·만다라 등이 널리 설명되어 있다. 특히 제2품 「구연품」에서는 신무진장엄(身無盡藏嚴)을 보이기 위한 대만다라(大曼荼羅)가, 「전자륜품(轉字輪品)」에서는 어무진장엄(語無盡藏嚴)을 밝히기 위한 법문신(法門身)의 만다라가, 「비밀만다라품(秘密曼荼羅品)」에서는 내심(內心) 움직임을 보이는 의무진장엄(意無盡藏嚴)이 설파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지의 방편력으로 자유롭게 중생을 이끌 수 있는 묘용이, 힘들이지 않고 실현되는 경지야말로 실로 궁극의 승과(勝果)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일경』의 요령(要領)은 ‘보리심을 인(因)으로 하고, 대비를 근(根)으로 하며, 방편을 구경(究竟)으로 한다’는 삼구(三句) 속에 집약할 수 있으므로, 경의 제목의 성불(成佛)이 ‘보리심을 인(因)으로 하고’의 당상이고, 신변(神變)이 ‘대비를 근(根)으로 하며’을, 가지(加持)의 말이 ‘방편을 구경(究竟)으로 한다’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총괄하는 것이 대비로자나, 즉 대일여래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위대한 요기 마르빠  
출가·재가의 경계를 허물다



그림=18세기 티베트 (루빈 박물관 소장)

인도불교가 전한 인도후기 대승불교는 나란다대학(마하위하라)이 지닌 정통한 불교교단의 면모, 특히 인도조사의 사자상승과 관정과 의례로 요약되는 전승과 더불어 정반대로 진리를 인간의 실존에 녹여내고 형식과 권위를 벗어나 오도만을 치열하게 탐구했던 요기들의 양 수레바퀴가 역사 가운데 선명한 자욱을 남기고 있다. 티벳불교 후전기의 조사 가운데 재가자로서 명백한 기록을 남기지만 위대한 요기이자 역경사로서 후

대 재가불자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는 마르빠(mar pa chos kyi blo gros, 1012-1097)가 있다. 마르빠의 전기는 그의 구도와 제자 밀라레빠를 길러 낸 티벳불교 가규빠의 전승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마르빠는 1012년경 티벳 남부 호탁의 추켈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마르빠왕족의셀, 어머니는 가모의셀이었다. 4형제 가운데 막내였던 마르빠는 일찍이 언어에 능하여 훗날 역경사로서 자질이 보였지만 자만과 고집으로 몽쳤던 외골수였고 아들의 교육을 걱정한 부모에 의해 독미사까예세(992-1072) 수도원에 보내졌다. 마르빠는 천재적인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해 3년간 수학으로 산스끄리뜨와 인도 지방어에 통달했다.

그러나 부모의 능력으로 본격적인 불교수업을 위한 수업비를 마련하지는 못한 처지여서 마르빠는 몸소 인도와 네팔을 오가며 돈을 벌어가며 구도와 장사를 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마르빠는 역경사 뇨의 문하에 들어가 종살이도 했으며 특히 치텔바,

빠인다빠라는 네팔밀교 아사리로부터 가나차끄라를 비롯해 여러 가지 관정과 밀교수행, 산스끄리뜨의 심화학습을 이어 나갔다. 두 아사리는 모두 위대한 인도 나란다대학 학장출신인 나로빠(naropa, 1016-1100)의 제자였기 때문에 마르빠는 그의 운명적 스승 나로빠에게 점차 다가가고 있었다. 마르빠는 역경사 뇨 스승을 모시고 인도를 여행해 나란다대학에 도착했다. 나로빠는 마침 학장직을 버리고 빨라하리에 수행차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마르빠는 빨라하리로 출발하여 마침내 나로빠를 만났다. 나로빠는 마르빠에게 밀교관정과 가르침을 전했고, 특히 후기밀교 가운데 비밀집회판뜨라와 해와즈라판뜨라를 중시하였다.

마르빠는 12년간 인도에 머물면서 가나갈바, 꾸꾸리빠, 마이뜨리빠 등 여러 스승으로부터 밀교와 도하문학을 전수 받고, 뇨 스승을 모시고 티벳에 돌아왔다. 마침 네팔과 티벳 국경지역에 통관절차상 며칠 머물렀는데 여기서 마르빠는 꿈에 사라하로부터 마하무드라 수행을 전해 받게 된다. 고향

에 돌아온 마르빠는 수행의 열정으로 인해 다시 인도로 돌아가고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 사금을 모아 인도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마르빠가 그의 주요한 두 제자인 옥편취꾸돌제(1036-1097)와 출똥왕기돌제를 만난 것도 이즈음이었고, 마르빠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도오릉에 법당을 마련하고, 결혼까지 하여 부인 다테와 사이에 달마도데라는 아들이까지 났었다. 마르빠는 인도로 돌아와 예전에 배웠던 스승들을 찾아 배움을 이어갔으며, 6년 후 마르빠가 다시 티벳에 돌아가려 할 때 스승들 가운데 나로빠는 마지막 남은 단계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조건으로 다음 인도 방문때 자신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르빠는 귀국하여 재가자이자 스승으로서 그가 인도에서 수학했던 가르침을 모조리 티벳에 전했는데 이 가운데 마하무드라와 나로최독이 가장 뛰어났다. 이때 마르빠는 메똥쑤똥소남겔첸과 더불어 운명적 제자 밀라레빠(1040-1123)를 만났다. 마르빠는 자신의 법을 아들에게 전하려 했으나 아들이 요절하는 바람에 전하지 못

했지만 아들은 인도의 브라만으로 다시 환생해 공행모구륜유가를 밀라레빠에게 전했다. 마르빠는 나로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 번째 인도 구도여행에 오르는데 마르빠는 중간에 거룩한 아피샤(982-1054) 존자를 만났다. 인도에 도착한 마르빠는 스승이 유가편력을 떠난 것을 알고 여러 달 동안 스승을 찾느라 헤매게 되었다. 마침내 마르빠는 나로빠를 찾아 스승으로부터 짜끄라상와라판뜨라를 전수 받는 등 3년간의 수행 기간을 거쳤다. 티벳에 전해지는 전기문학에 따르면 나로빠는 마르빠에게 몹시 인색하여 요구한 수업비가 없으면 절대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다. 나로빠가 마르빠로 하여금 두 차례 더 인도여행을 하게 된 것도 가르침을 구실로 마르빠에게 수업료를 요구해 혹독한 구도여행을 종용한 나로빠에 의해 계획된 것이었다. 마르빠는 티벳에서 주로 사금을 모아 나귀에 싣고 돌아와 나로빠에게 수업료를 지급하였는데, 세 번째 여행에서 수업을 마칠 즈음 나로빠는 예전처럼 마르빠가 준비한 사금 대부분을 소진하게 만들었다. 마르빠는 원래 티벳으로 돌아갈 여행 채비로 사금 한 주머니를 감춰 두었는데, 어느날 나로빠는 마르빠에게 마지막으로 숨긴 사금마저 요구하였다. 마르빠는 빈털터리가 되어 티벳

에 돌아갈 걱정애 마지못해 사금 주머니를 내밀자 나로빠는 “누굴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나로빠는 마르빠를 언덕 절벽위로 데려가 마르빠가 혼신을 다해 모은 사금 주머니를 탈탈 털어 황금을 공중에 흩뿌렸다. 마르빠가 주저앉자 나로빠는 제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온 세상이 황금인 도리를 너에게 가르쳐주려 하는데, 너는 이까짓 사금 찌꺼기로 상심하고 있는나?” 나로빠와 마르빠는 스승과 제자로 만나 비로소 영혼이 일체된 것이다. 나로빠는 마르빠를 고생시켜 그가 간직한 장애의 업을 풀어주었다. 나로빠는 마르빠 이외에 다른 제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마르빠가 법통을 이었다고 선언하였다. 마르빠는 평생 13분의 스승을 모셨고 평생 24권의 저술을 남겼다. 마르빠는 88세 선전 중에 입적하였고 제자 가운데 옥편이 수습하여 불탑에 모셨다. 마르빠의 전기는 15세기 경 가규의 법통을 계승한 쟁옌 헤루가에 의해 제자인 밀라레빠의 전기와 함께 결집되었다. 사실보다 문학적 소재가 강한 것으로 이 가운데 『밀라레빠의 생애』와 『밀라레빠의 심만송』은 티벳 불교문학의 백미로서 티벳 밀교수행자, 요기들의 치열한 구도와 아름다운 오도의 시가는 오늘날 세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환경문제의 불교적 해법



하령 정사  
(법천사 주교/철학박사)

1

오늘 날의 인류는 과학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산업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구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환경오염이란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석탄과 석유의 과도한 소비에 따른 공기오염에서부터 산업폐기물이나 화학비료의 남용, 동물의 사육, 핵 폐기물의 처리, 플라스틱 제품의 남용 등에 의한 수질과 토양의 오염을 들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 급증, 열대 우림의 파괴, 가축사육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고 있다. 대기 오염에 따른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의 기온을 계속 상승시켜 극지대의 빙하를 녹게 하고 이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기상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폭설과 폭우, 폭염, 한파, 가뭄 등의 기상 이변도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여 해수면의 온도가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최근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홍수, 장기간의 가뭄, 이상 기온 등이 모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 변화에 기인한다.

이제 지구상의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자연 재해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자연 재해는 지구가 생긴 이래 언제나 있어 왔지만 정상궤도를 벗어난 지금과 같은 빈번한 폐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사막지대의 급격한 확대나 세계 각지의 극심한 가뭄 등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이다. 한국과 같이 자연재해에 비교적 적게 노출되는 나라도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동식물의 멸종, 그리고 그에 따른 농수산업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피해 이외에도 산업 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토양과 수질 오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산업화가 진전된 많은 나라들에서는 중금속의 배출로 인하여 식수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수질이 좋기로 유명했던 한국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물을 사먹는 것은 상상도 못했으나 지금은 생수를 사먹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었다. 인간 생활에서 공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인데 물이 오염됨으로써 인간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산업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이제는 생선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는 해산물에서도 중금속이나 플라스틱이 검출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없어졌다. 여기에 더하여 유전이나 유조선 사고, 폐수 유입 등으로 인하여 해양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몇 년 전 한국도 유조선 사고로 인하여 서해안이 오염되어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이웃 나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선진국의 자원개발 경쟁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나 미개발 국가들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사고들은 더욱 빈번할 것이다. 만약 바다마저도 오염된다면 지구

# ‘연기’의 진리는 자연과 공존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의 종말은 종말론자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기정사실이 될 것이다. 이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전쟁으로 인한 것보다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날마다 확대되고 있다.

지구의 자원이 무한정한 것처럼 소비하면서 환경문제를 유발해 왔던 인간들은 최근에 와서야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과 더불어 지구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이 창설되어 환경보호를 역설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선진국에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자원 절약과 쓰레기 재활용, 친환경 운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지구의 황폐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이나 작은 단체들의 노력만으로 지구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에는 산업화와 대량 소비에 따른 오염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지구의 황폐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 서구 사회는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자연을 등한시 환경오염의 근원적 원인,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

들은 가까운 시간 내에 자신들이 저지른 업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업보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식량 부족과 물 부족, 각종 질병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래의 이러한 재난을 피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나는 그 해답을 이제는 불교에서 찾기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2

그동안 서구 사회는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자연이라는 것을 등한시 해왔다. 신의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은 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창조해 왔던 것이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다른 생물들까지도 포함하여--오직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세뇌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한 정신적 토대 위에서 끝없이 자연을 개간하고 자연을 착취하며 자연을 훼손해 온 결과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이룩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사회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른바 산업개발과 과학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던 많은 행위들이 실은 우리 인간의 심성을 황폐하게 만들고 주변 환경을 더럽혀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인간들은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끝없이 자연을 착취하여 재화를 만들어 내고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켜 왔다. 서구인들은 한때 ‘소비는 미덕’이라는 말을 내세우며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켜왔다. 자원의 고갈 뿐 아니라 대량 소비와 대량 생산에 따른 폐기물들을 쏟아내며 환경을 오염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하면 할수록 그러한 행위가 지구를 얼마나 황폐하게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인들의 이러한 자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는 앞으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실천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처님 당시에는 자연을 훼손하고 그에 따른 환경 문제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나 그 방지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경전

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불교의 교리와 자비에 바탕을 둔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자연을 지키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그러한 생활 방식이 곧 환경보호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불교의 근본 교리는 연기와 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운데에서 연기의 진리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며 불교 독자의 진리관이다. 부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일체의 것은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는 상의상관의 법칙 속에서 존재한다는 연기법을 깨침으로써 평범한 인간에서 깨친 사람, 곧 붓다가 되셨던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 이 연기법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점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구성과 생성의 원리까지도 밝히고 있는 불교만의 진리관이다. 불교의 교리가 합리적이고 과

학적이며 시대와 지역, 그리고 대상을 초월하여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연기법이라는 진리에 의하여 모든 존재와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중심철학인 연기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멀하면 저것이 멀한다(此有故彼有, 此滅故彼滅)”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현된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발생하고 소멸하며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하고 현상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기의 철학을 이해하는 불교도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연기법에 의하여 파악한다. 우리를 둘러싼 기세간(器世間)이 원만하지 못하면 기세간에 머무르고 있는 중생들의 삶도 원만하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터전으로 하여 살고 있는 땅과 바다, 하늘이 오염되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오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연기의 진리를 설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미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일러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유정물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할 것을 배운다. 또한 생명 있는 것 뿐 아니라 모든 물건을 중생들을 위하여 절약하고 함부로 낭비하는 것을 경계한다. 자연은 우리의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와 더불어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연기의 진리를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나라에 흉년이 들면 지구 전체가 곡물 가격의 폭등에 시달린다. 가까운 예로 몇 년 전에 러시아가 흉작을 이유로 곡물수출을 금지하자 세계의 곡물 값이 급상승했던 것처럼 어느 한 나라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그것이 곧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황폐화와 환경 오염도 피해를 적게 받는 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수수방관하다가 그 피해가 어느 날 고스란히 자기 나라에 밀어닥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일본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의미이다. 환경 오염의 피해는 그것을 저지른 그 나라의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이 한 가족처럼 된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서로 의존하여 살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서로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지구인들의 생활 양태를

“  
불교의 중심철학 연기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멀하면 저것이 멀한다  
(此有故彼有, 此滅故彼滅)’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현된다

”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연기의 진리에 입각하여 잘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구의 자원은 무한정하며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교도들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수

정해 주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  
  
특히 불교지도자들은 지구상에서 지구를 황폐화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일한 생물이 우리 인간임을 각성하도록 연기의 진리에 입각하여 사회를 계몽하고 특히 정책입안자들과 경제적 리더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일반 불자들도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생과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연기의 진리를 잘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에서 그러한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

4

인간들이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이룩한 것은 인간의 탐욕이 그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인간들은 인간의 행복을 마음의 만족보다도 물질적인 만족에 더 초점을 맞추어 노력해왔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재화를 생산하여 인간의 탐욕을 채우려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인간들은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화를 생산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환경오염도 근원적인 원인은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탐욕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재화가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안다면 인간의 역사는 훨씬 달라졌을 것이며 비록 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발전과 산업의 융성은 보지 못했겠지만 인간 개개인의 행복도는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환경오염의 피해도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인류는 그동안 행복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서 찾는 생각은 하지 않고 바깥으로 향하여 물질적인 만족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해 왔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이러한 눈부신 산업발전과 과학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인간들은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생활고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빈부간의 격차는 국가 내에서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간에서도 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국제적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빈부 격차와 자원확보를 둘러싼 국제간 갈등은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으며 전쟁수행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자연의



훼손은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핵실험 등에 의한 토양과 바다의 오염은 심각한 지경이다. 화학무기의 살포 또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의 충족을 위한 대립과 투쟁은 개인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다스림에 의하여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구의 모든 인간들이 탐욕을 내려놓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게 되면 소비도 줄어든 것이며 소비를 지탱하기 위한 자연의 훼손도 줄어든 것이다. 거기에 따라 병든 지구도 다시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며 자연재해를 통하여 보여준 노여움도 점차 수그러들 것이다.

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는 산업개발에 앞장섰던 선진국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대기를 오염시키고 가장 많은 재화를 생산하여 산업쓰레기를 쏟아내었고 과소비를 부추겨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나 중국 등 몇몇 강대국들이 온실가스감축협정에서 한 발 물러서려는 지금까지의 태도는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간의 협약사항이고 실제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구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성과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환경문제를 논의 하

“  
우리 불교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  
하여 환경문제를 논의하  
고 사회를 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불자들 스스로 자원을 아끼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생활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

## 탐욕을 내려놓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면 소비도 줄어든 것 자비심을 베풀어 모든 생명과 자원을 아끼는 태도 지녀야

한정된 자원을 두고 내가 그만큼 더 가지면 다른 사람의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의 제어와 함께 자비심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된다. 욕심을 줄이고 자비심을 발휘하여 내가 쓸 것을 다른 누군가가 쓰게 하여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지닌다면 필요 이상의 자원낭비는 훨씬 줄어들 것이며 그만큼 환경보호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항상 소박한 삶을 살도록 하며 남에게 양보하고 모든 물자를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른다면 청정국토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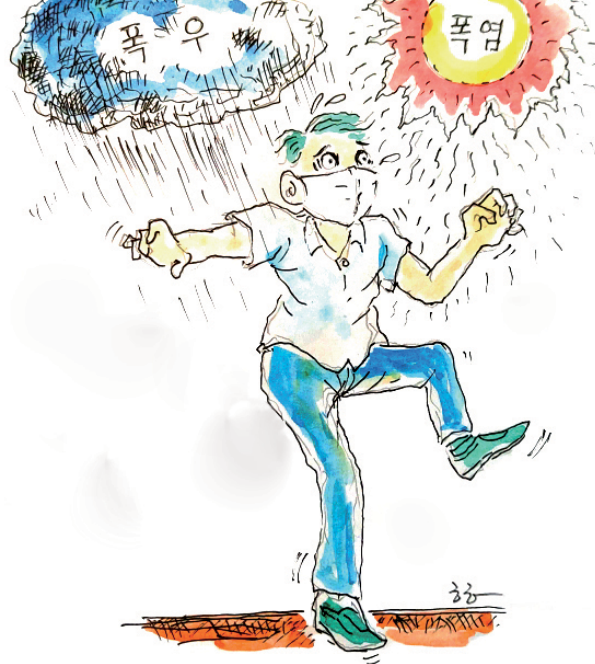
## 5

환경오염의 문제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그저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반응할 따름이다. 인간들이 지금껏 저질러 왔던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지구 황폐화는 인간의 손

과 사회를 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희망대로라면 이 지구상에 많은 불자들이 생겨나서 연기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러한 진리를 생활상에 실천하여 스스로 욕심을 절제하고 낭비를 줄이며 자비심을 베풀어 모든 생명과 자원을 아끼는 태도를 지닌다면 더 할 나위 없는 행운

라 욕심을 절제하고 소박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그러한 태도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불제자로 변신할 때 환경보호와 함께 이 지구의 평화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 지구온난화



자료삼화=김홍균 작가  
(총지신문 250호)

## 환경보호를 위한 불교도의 실천 방안

### 1.음식을 절제하라

과도한 음식의 섭취는 본인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의약품과 물자가 소비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의약품과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며 공해를 유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비만한 사람이 감량을 하기 위하여 런닝 머신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전기가 소비되고 있으며 그러한 전기가 화력발전에 의한 것이라면 대기오염을 촉진하는 것이 된다. 원자력발전이라고 해도 발전소의 핵폐기물은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적게 먹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라.

### 2.육식을 삼가라

육식을 하기 위하여 많은 가축이 사육된다. 가축 사육은 농경지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생산 감소를 가져오며 기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음식 섭취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 더구나 가축 사육에 따른 폐기물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질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항생제의 독성은 고스란히 먹는 자의 입으로 들어간다.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항생제 등을 만드는 재료는 석유에서 나오기도 한다. 또한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육류 대신 식물을 섭취하면 건강에도 좋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 3.사치와 낭비를 하지 말라

필요 이상의 큰 집에 살거나 큰 차를 타거나 많은 옷을 소유하는 것도 자원 낭비가 된다.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에너지도 결국은 지구를 황폐화하는 길이다. 큰 차를 소유함으로써 소비되는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자동차 경주나 오토바이 경주 등은 공해를 유발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가장 저열한 오락이다. 그리고 애완동물 기르는 것도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것이다.

일 년에 한번 입을까 말까한 옷이나 구두, 핸드백을 쌓아두는 것도 자원 낭비이다. 이러한 제품의 대부분은 석유화학제품이다.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그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재료가 된다. 검소한 생활태도는 환경 보호의 첫걸음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치와 낭비만 절제하더라도 환경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4.종교행위를 빙자한 환경오염을 염두에 두라

불교는 마음을 다스려야 복을 받는다고 한다. 종이돈이나 향을 태움으로써 복을 얻는다고 기대하지 말라. 부처님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을 것이다. 종이돈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숲이 훼손되어야 하는지 아는가? 삼림의 훼손은 오존층 파괴의 가장 으뜸의 원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태움으로써 나오는 연기는 건강을 해치고 주위의 생물도 해치게 되며 대기를 오염시킨다. 나아가서는 수질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라.

### 5.물건을 아껴 쓰고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라

어떤 물건이던지 아껴야 한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중생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아껴야 한다. 일회용 그릇이나 용품은 가급적 쓰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석유가 소비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것들이 버려졌을 때 토양과 물이 오염된다는 것을 생각하라. 설혹 그러한 것들이 재활용된다고 하여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에너지의 소비는 막대하다. 쓰레기를 줄여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욕심을 줄이고 소박한 삶을 꾸려가면 쓰레기도 훨씬 줄어든다. 쓰레기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사람이야말로 환경보호에 가장 앞장 서는 사람이다.



##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 종단협 제1회 한국종교문화체험사업 참가

총기 41년(2012년)  
7월 13일 ~ 7월 16일

장소 :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천주교,  
성공회, 원불교 등

### 제19대 국회 정각회 후반기 회장 취임법회 참석

총기 43년(2014년) 7월 8일

내용 : 신임 정각회장 강창일 의원, 부회장  
주호영, 김영주 의원 선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 세월호 희생자 추모 100재 위령재 참석

총기 43년(2014년) 7월 24일

내용 : 세월호 희생자 추모 100재 위령재  
장소 : 조계사 대웅전

### 불사법요(교도용) 배포

총기 44년(2015년) 7월 21일

내용 : 밀교연구소 불사법요(교도용) 개정  
및 각 사원 배포

### 종의회 종법연구 소위원회 회의

총기 45년(2016년) 7월 27일(수)

회의안건 : 종의회법 연구  
장소 : 자석사  
참가자 : 의장 수현, 위원 승원, 도현, 법일,  
덕광, 법선, 법상 정사

### 혜암 종사 열반

총기 48년(2019년) 7월 10일

장례식장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장례식장  
영결 추선불사 : 7월 11일 오후 7시  
참석인 : 전교 승단 승직자 및 사원교도

### 종단협, 성지순례 운남성

총기 48년(2019년) 7월 21일 ~ 24일

내용 : 중국 미륵불교 성지 운남성 계족산,  
곤명 원통사, 대리 송성사 등 성지순례  
참가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2개  
종단 대표자

### 청와대 한국불교지도자 초청

총기 48년(2019년) 7월 26일

장소 : 청와대  
참가자 : 문재인 대통령, 통리원장 인선  
정사, 한국불교계 지도자 13명, 박양우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등



도경스님의 수행법문

#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13>

## 수행이 어떻게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가?

살아오면서 많은 삶의 문제를 만나고 나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삶의 문제는 화입니다. 화가 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그렇게 일어난 화를 해결하려고 해 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면 그 사람과 관계된 상황의 인과를 따져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만한 상황인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수궁이 생기면 화는 줄어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를 해결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이 들면서부터 이렇게 화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화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인과를 통해 화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화가 일어나면 새롭게 인과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계속 새로운 상황과 이야기가 생겨나고 새롭게 화가 나면 또 새롭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관념적 이야기를 통해서 화를 해결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수행은 어떻게 화를 해결합니까? 수행은 그런 이야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수행은 화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화를 수용하고 바르게 관찰하면서 화가 나의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난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고자 하고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해가 생겨나면 화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다음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다시 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화가 전날 일어난 화와 다를까요? 화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전날 화에 대해 이해한 지혜가 다음날 화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이해가 화를 좀 더 바르게 관찰할 수 있게 하고 더 깊은 이해가 생길 수 있게 합니다. 10년 뒤에 일어난 화는 다를까요? 죽기 직전에 일어난 화는 다를까요? 모든 화의 성질은 동일합니다.

수행은 동일한 것, 변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없는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알아차림의 대상은 화, 욕심, 보는 작용, 듣는 작용, 생각하는 작용, 느끼는 작용 등입니다.

이것들의 성질은 영원히 변할 수 없습니다. 한 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알아차림 하는 대상들입니다. 한 번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다음에 그 이해의 견해로 그것을 다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깊은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일어남에 대한 이

를 깨달으셨습니다.

당신이 큰 사야도의 법문을 소리라고 알지 못하고 스승의 법문이라는 생각에 좋아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30만쯤 좋아하면 얻지 못했을 때 30만쯤 화가 나고 100만쯤 좋아하면 얻지 못했을 때 100만쯤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

랑하는 만큼,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만큼 우리는 고통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십시오. 그런 삶의 고통, 삶의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통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보십시오.

우리는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 관념적 이야기로 화를 해결하는 것, 본질적 문제의 해결책 안돼 자신을 관찰하며 자신을 이해하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해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을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펜줄럼 규칙)

저의 스승이 당신의 스승인 고크 웨우민 사야도와 함께 수행하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사야도께서 법당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좌선이 끝나는 시간 정도에 큰 사야도께서 법당에 들어오셔서 바른 견해에 대한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야도는 그 법문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 날은 수행 상태가 아주 좋아서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큰 사야도의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때 법당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발을 씻는다고 물을 아주 세게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바람에 사야도는 큰 사야도의 법문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사야도의 마음에 화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화의 마음이 물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면서 거친 말들을 내 뱉고 있습니다. 사야도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조금 전까지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았는데 이렇게 금방 마음이 괴로워졌는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생각, 마음의 움직임, 느낌의 변화 등을 관찰하시고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졌는지

니다. 좋아하는 만큼 화가 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야도께서는 펜줄럼 규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붓다에게 어느 날 누가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행복하고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붓다는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슬퍼하고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 분의 배우자, 아들, 딸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구 때문에 가장 참기 힘든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 분의 배우자, 아들, 딸 때문에 가장 큰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 좋아함이 집착의 좋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아들, 딸, 배우자 보다 더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배우자, 아들, 딸도 나의 배우자, 나의 아들, 나의 딸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집니다. 붓다께서도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진정 가장 큰 고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자신을 사

우리는 있는 것을 받아드리고 인정하고 관찰합니다. 그런 관찰을 통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있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면서 자신에 대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갈 것입니다.



### 화음사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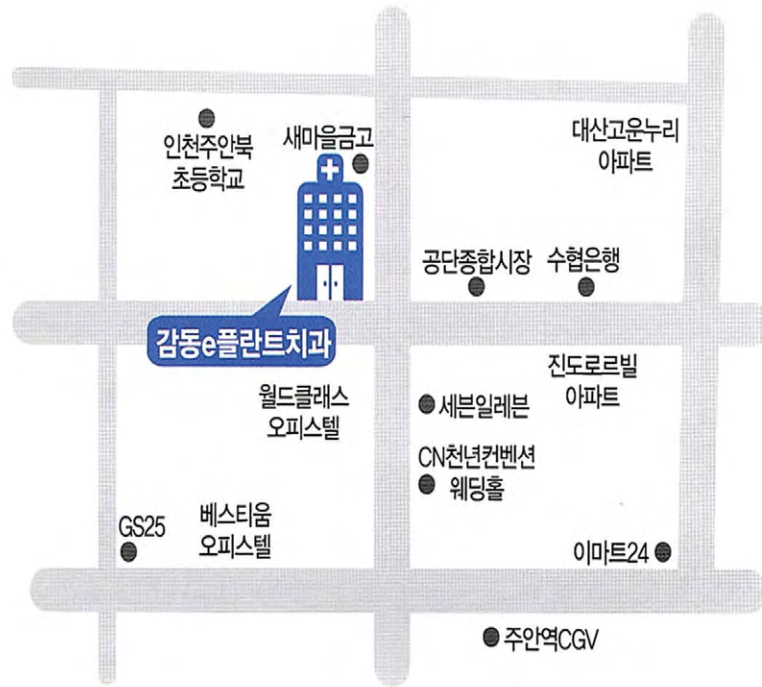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 동해중 반야회, 법경 정사 초청 정기 법회

108염주 꿰기, 산사순례 등 하반기 준비 한창



동해중 학부모 불자모임인 반야회가 지난 28일 중앙도서관에서 정기 법회를 열었다.

동해중학교 학부모 불자모임인 반야회(회장: 지은경)가 법경 정사(정각사 주교)를 초청 법사로 지난 28일 동해중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정기

법회를 열었다. 매달 넷째 주 월요일 개최되는 정기 법회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됐다.

이날 법회에서 법경 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주제로 법문을 열었으며, 30여 명의 회원들이 법석을 매었다.

반야회 지은경 회장은 “인생은 힘든 고의 연속이지만 극복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터널을 지나듯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씀에 깊은 감회를 받았다.”고 소회하며, “다음 정기

법회 시간에는 108염주 꿰기를 준비해서 가정에서도 개인 정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 앞서 동해중학교 송인근 교장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학기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사인 진학·진로에 관한 강의계획에 대해 알렸다.

한편 반야회는 코로나로 인해 미루어져 왔던 산사순례도 하반기에는 방역수칙에 따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멈추지 말 것

최근 한국갤럽의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3~4월 전국(제주 제외)의 만 19세 이상 1,500명에게 과거에 비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지, 감소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54%가 ‘과거와 비슷하다’, 28%는 ‘감소하고 있다’, 18%는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1984년 이래 처음으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증감 의견이 뒤바뀐 결과라고 보고했다.

한국인이 느끼는 종교의 영향력은 2014년까지 확장세, 2021년 지금은 답보·축소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을 종교별로 보면 불교인과 천주교인은 약 50%에서 20% 내외, 개신교인은 2014년 59%에서 2021년 26%로, 비종교인은 40%에서 15%로 줄었다.

요즘 종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 준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4점 척도), ‘(매우+어느 정도) 도움 준다’는 응답이 2014년 63%에서 2021년 38%로 하락했고, ‘(별로+전혀) 도움 주지 않는다’는 38%에서 62%로 늘어 7년 사이 종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긍·부정 인식이 반전됐다.

종교의 사회적 기여에 관해서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시각차가 뚜렷하며, 7년 사이 그 간극이 더 커졌다. 종교인은 대체로 종교가 사회에 도움 된다고 보지만(불교인 67%→59%, 개신교인 2014년 87% → 2021년 80%, 천주교인 79%→65%), 비종교인의 82%는 부정적이다. 종교가 도움 된다는 응답은 2014년 대비 종교인에게서 10%포인트 내외, 비종교인(48%→18%)은 30%포인트 감소했다.

또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우호적이다.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하 ‘비종교인’, 902명)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 6%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종교 분포가 불교 16%, 개신교 17%, 천주교 6%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종교인의 불교와 천주교 호감도는 교세보다 높고 개신교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종교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개신교인의 매주 종교시설 방문율은 2014년 80%에서 2021년 57%로, 천주교인은 59%에서 42%, 불교인은 6%에서 1%로 각각 감소했다. 한국 종교는 물론 불교가 처한 상황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편해도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전 없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종조법설집 제 3절 보시와 법시편에서 원정 대성사께서는 ‘인간은 사회성, 연대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것이 자기를 돕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이득(二得)의 결과가 된다. 자기만을 위하여만 살 수 없다. 이는 곧 이실(二失)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미 50년 전 대성사께서는 부처님의 ‘자리아타(自利利他)’ 정신을 ‘보시와 법시’로 가르침을 전하셨다.

‘중생의 고난을 없애고 그들의 바람을 만족시켜 주라.’는 새 ‘불사법요’ 첫 장의 말씀처럼 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소외되고 그늘진 곳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탈종교화 시대에 우리 종단이 멈추지 말고 나아갈 바는 아닐까?

박재원 기자

# 다정 김규현 화백 ‘설산 동자 부채전’

전남 보성 대원사, 네팔 어린이 돕기 8월 31일까지

종단과 함께 네팔 어린이 돕기를 추진 중인 다정 김규현 화백이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스님) 티벳박물관에서 오는 8월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네팔 안나푸르나 설산 기슭의 그림반 아이들 학용품 지원을 위한 ‘설산 동자 부채전’을 개최한다. 김 화백은 “네팔의 설산동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부채 바자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티벳박물관장 현장스님이 보내준 부채에다가 부메학교 미술반 학생들이 히말라야 설산과 그곳의 풍경을 담아 다시 한국으로 보내왔다. 네팔 전문 화가가 그린 그림을 포함해 부메학교 미술반 학생들이 만든 부채 80점을 함께 전시하며 부채 판매수익금 전액을 미술반 학생들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 대한불교진흥원, 4대 공모사업 시행

불교기관, 단체, 청년, 학술콘텐츠 등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2021년 2021년 하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제18회 대원상은 출가 부문과 재가 부문으로 나누어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사회활동, 강연(설법), 콘텐츠 제작, 저술 등을 통해 효

율적이고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한 개인·단체를 시상한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제3기 불교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불교 신행(수행) 실천, 학술 세미나 및 학술지 발간, 문화 행사, 복지·포교·미디어 활동 등 기관과 단

체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여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다. 불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제3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공모는 청년 불자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인과 불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다.

제4기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는 불교를 오늘에 맞게 연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불교 학술 부문(저서, 번역서)과 불교 콘텐츠 부문(만화, 동화, 소설, 찬불가 작사/작곡, 수행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할 수 있다.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다. 문의 02-719-2606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후원에 감사합니다

5월 21일 ~ 6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     |      |        |
|------|-----|------|--------|
| 건화사  | 법상  | 6/20 | 20,000 |
| 개천사  | 법등  | 6/11 | 50,000 |
| 관성사  | 인선  | 6/20 | 20,000 |
|      | 황성녀 | 5/28 | 20,000 |
| 관음사  | 김정희 | 6/1  | 10,000 |
| 기로스승 | 해정  | 5/28 | 10,000 |
|      | 공덕성 | 6/20 | 20,000 |
|      | 상지화 | 6/20 | 10,000 |
|      | 수증원 | 6/20 | 10,000 |
|      | 밀공정 | 6/20 | 10,000 |
|      | 총지화 | 6/20 | 10,000 |
|      | 법수원 | 6/20 | 10,000 |
|      | 선도원 | 6/20 | 10,000 |
|      | 법지원 | 6/20 | 10,000 |
|      | 일성혜 | 6/20 | 10,000 |
|      | 사홍화 | 6/20 | 10,000 |
|      | 안주화 | 6/20 | 10,000 |
|      | 진일심 | 6/20 | 10,000 |
|      | 시각화 | 6/20 | 10,000 |
| 단향사  | 최상관 | 6/20 | 10,000 |
|      | 연등원 | 6/20 | 10,000 |
|      | 지홍  | 5/30 | 10,000 |
|      | 이수형 | 5/30 | 10,000 |
| 덕화사  | 법상인 | 5/24 | 10,000 |
| 동해사  | 법선  | 6/20 | 10,000 |
| 동해사  | 김진화 | 6/2  | 10,000 |
| 만보사  | 강명순 | 5/24 | 10,000 |

|           |     |      |         |
|-----------|-----|------|---------|
| 밀인사       | 록경  | 5/23 | 10,000  |
|           | 법수연 | 5/23 | 10,000  |
|           | 정정희 | 6/1  | 5,000   |
|           | 김재영 | 6/5  | 10,000  |
|           | 록경  | 6/5  | 10,000  |
|           | 법수연 | 6/5  | 10,000  |
|           | 록경  | 6/20 | 10,000  |
|           | 법수연 | 6/20 | 10,000  |
| 벽룡사       | 승원  | 6/20 | 10,000  |
|           | 묘원화 | 6/20 | 10,000  |
| 법천사       | 반야심 | 5/31 | 10,000  |
| 벚고을 어린이집  | 이민선 | 6/2  | 50,000  |
| 사원명 무기명   | 하명순 | 5/25 | 10,000  |
|           | 남영애 | 6/1  | 30,000  |
|           | 이진승 | 6/2  | 10,000  |
| 석관실버 복지센터 | 김여진 | 5/25 | 10,000  |
|           | 나석원 | 5/25 | 100,000 |
|           | 김윤수 | 5/25 | 10,000  |
|           | 오순자 | 6/11 | 50,000  |
| 세곡기움 센터   | 선혜중 | 5/25 | 10,000  |
| 수인사       | 정순득 | 5/26 | 10,000  |
| 실보사       | 서령  | 5/24 | 20,000  |
|           | 무명씨 | 5/26 | 20,000  |
|           | 이순옥 | 6/2  | 10,000  |
|           | 박성호 | 6/2  | 10,000  |
|           |     |      |         |

|              |     |      |        |
|--------------|-----|------|--------|
| 실보사          | 박현정 | 6/14 | 20,000 |
| 실지사          | 덕광  | 6/20 | 10,000 |
|              | 보현  | 6/20 | 10,000 |
|              | 정혜정 | 5/31 | 10,000 |
|              | 연화법 | 5/31 | 10,000 |
|              | 유승우 | 6/8  | 10,000 |
|              | 이서현 | 6/8  | 10,000 |
|              | 이도현 | 6/8  | 10,000 |
|              | 관득  | 6/16 | 10,000 |
| 아동회관<br>어린이집 | 진금선 | 5/31 | 50,000 |
| 양지<br>어린이집   | 정동숙 | 5/27 | 50,000 |
| 운천사          | 반야화 | 6/14 | 20,000 |
| 일원<br>어린이집   | 하재희 | 5/25 | 50,000 |
|              | 연명구 | 5/28 | 10,000 |
|              | 최자영 | 5/31 | 10,000 |
|              | 구미자 | 5/31 | 10,000 |
|              | 임지혜 | 5/31 | 10,000 |
|              | 이현직 | 5/31 | 10,000 |
|              | 도우  | 6/7  | 10,000 |
|              | 지현  | 6/7  | 10,000 |
| 자석사          |     |      |        |
| 참원햇살<br>어린이집 | 김선희 | 6/10 | 50,000 |
| 정각사          | 노점호 | 5/21 | 10,000 |
|              | 안한수 | 6/2  | 10,000 |
|              | 탁상달 | 6/14 | 10,000 |
| 지인사          | 승효제 | 5/24 | 10,000 |

|            |     |      |        |
|------------|-----|------|--------|
| 초록 어린이집    | 이지희 | 5/25 | 50,000 |
|            | 강혜란 | 5/25 | 10,000 |
|            | 최해선 | 5/25 | 10,000 |
|            | 김정환 | 6/8  | 10,000 |
|            | 백귀임 | 6/10 | 10,000 |
|            | 신성희 | 6/14 | 10,000 |
|            | 신명준 | 6/14 | 10,000 |
|            | 신현태 | 6/14 | 10,000 |
|            | 원당  | 6/14 | 10,000 |
|            | 묘심해 | 6/14 | 10,000 |
| 포레스터7 어린이집 | 최영아 | 6/15 | 10,000 |
|            | 홍수민 | 6/16 | 10,000 |
|            | 최유정 | 5/26 | 50,000 |
|            | 우인  | 5/24 | 10,000 |
| 회음사        | 보명심 | 5/24 | 10,000 |
|            | 무명씨 | 5/28 | 10,000 |
|            | 무명씨 | 6/1  | 10,000 |
|            | 강정이 | 6/1  | 10,000 |
|            | 무명씨 | 6/6  | 10,000 |
|            | 박옥자 | 6/6  | 10,000 |
|            | 무명씨 | 6/6  | 10,000 |
|            | 최영미 | 6/10 | 50,000 |
|            | 강승민 | 6/10 | 5,000  |
|            | 무명씨 | 6/13 | 10,000 |
| 힐스어린이 집    | 곽방은 | 6/10 | 50,000 |





## 불교의 믿음과 과보를 바로 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라도 막상 생활 현실에서 충격을 받으면 당황하고 신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믿었던 스님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독실한 불자에게 배신당할 때, 입으로는 남을 도우라 하면서 자기 이익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불자를 볼 때 우리는 불교가 무엇인지, 불자가 왜 저렇까 하며 혼란이 오기도 한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았던 모양이다. 고려시대 백운선사가 지은 「직지(直指)」(동국역경원)에 보면, 선종의 제19조 구마라

래의 삼세에 걸쳐 반드시 받는다고 한다.

믿음에서 정견과 수행으로 흔들림 없이 그럼에도 우리는 눈앞에 바로 인과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대의 현실에 직면하면 불교에 믿음이 흔들린다. 이것은 비단 불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일부 교회가 당국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기도 집회를 열어 확진자가 속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불신하는 이들이 급증하였으니 말이다. 이것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종교의 믿

매일매일 수행해야 한다. 불교의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행을 생활화하면서 집과 직장에서는 남을 배려 존중하면서 남들이 잘되게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은 나와 나의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깨치고 생사의 괴로움을 멈추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평생 걸식과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 나와 나의 것에 집착을 떠나면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를 끝없이 비워가면서 남을 돕는 이타행을 하면 기쁨도 배가 된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의 방대

## 믿음이 맹목적일 때 악업을 짓고 불행에 빠지기도 수행의 생활화로 남들이 잘되게 돕는 삶을 살아야

다 존자가 어느 날 사야다 거사가 찾아와 이렇게 문답한 대목이 나온다.(아래 문답)

실제 우리 주변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불행해지고 사업이 망하는 경우를 보면, 불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누구나 겪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구마라다 존자는 인과(因果)는 그림자가 본체를 따르듯이 한 치의 어긋남이 없으니 의심하지 말라 한다. 또한 과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음이 맹목적일 때 그 믿음은 악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아 불행에 빠지게도 한다.

그러니 불교를 바르게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믿음과 동시에 바른 불교 공부를 통하여 정견(正見)을 세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절에서 불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정기적으로 법문을 듣고 기도, 주력, 염불, 참선 등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정해 하루 5분이라도

한 가르침에는 믿음과 기도도 좋지만, 이것만으로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멈출 수 없다. 우리 불자들이 정견을 세우고 바른 믿음과 행을 닦아 매일매일 정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삶이라면 미래를 걱정할 것도 없고 과보를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것도 없다. 오직 내가 지은대로 받는 것이니 어찌 의심과 두려움이 있겠는가?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 구마라다와 사야다의 문답

“우리 부모님은 오래 전부터 불교를 믿었지만 항상 병을 앓으셨고 하는 일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은 오랫동안 백정 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데 언제나 건강하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집은 무슨 복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왜 이러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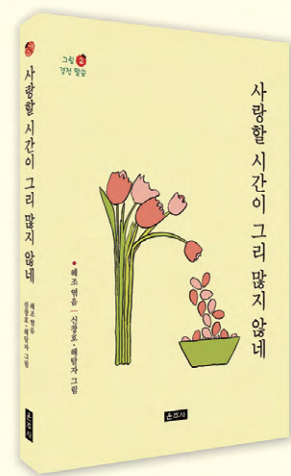
“그것을 어찌 의심하고 있소? 선악의 과보는 삼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요. 보통 사람들은 항상 어진 사람이 일찍 죽고 못된 사람이 장수하며, 반역하는 사람이 길하고 의로운 사람이 흉하는 것만을 보고는 인과도 없고 죄와 복도 없다고들 하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와 메아리가 서로 따르되 추호도 어긋남이 없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요. 백천만겁을 지나더라도 그것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요.”

사야다는 이 말을 듣고 나자 의심이 단박에 풀렸다.



##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네 - 그림 경전 말씀 2



저자 혜조 역음 | 신창호·해탈자 그림  
판형 137×194 (국판 변형) | 무선 | 248쪽  
출간일 2021년 5월 28일  
정가 14,000원  
출판사 도서출판 운주사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에 이은 그림 경전 말씀 두 번째 권이다. 팔만대장경의 방대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간단하면서도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어구를 가려 뽑아 삽화와 함께 엮었다.

역은이는 “중생들의 온갖 괴로움을 벗어나게끔 설하셨던 팔만대장경 범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제대로 된 근본 치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는 그 불편한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 똑바로 직면하고 깨달아 잘못된 생각과 습성들을 고쳐나가는 근본 치료를 통해,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환경도 소중히 여겨서 모든 생명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 발

원한다.”라고 전했다.

이 책 속에는 또 여러 경전과 논서, 선어록 등에서 출가자나 재가자들이 자신의 수행과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가르침들을 담았다. 또한 재가불자들이 가르침과 어울리는 삽화를 넣어 ‘그림 경전 말씀’이라는 새로운 형식과 느낌의 책으로 제작했다.

역은이인 혜조 스님은 봉녕사 강원을 나와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우리말 법화삼부경』(역서), 『우리말 법화경』(역서),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너를 위하여 밝혀둔 작은 램프 하나』(시집), 『영경귀 붉은 향』(시집)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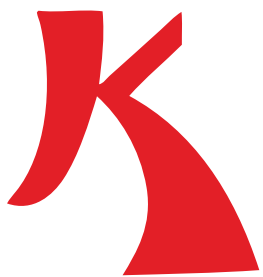


### 불교서적 월간베스트(6/1~30)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조선이여 법의 등불을 밝혀라            | 원행 스님     | 조계종    |
| 2  | 프리스틴 마인드                   | 울겐 초왕 린포체 | 운주사    |
| 3  |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 스님     | 불교신문사  |
| 4  | 수계50문답 : 초심자를 위한 바른 수계 길잡이 | 법고문화 편집부  | 담앤북스   |
| 5  | 현설은 영원이다                   | 지광 스님     | 위로     |
| 6  | 요가디피카                      | 현천 스님     | 선요가    |
| 7  | 우리는 늘 바라는대로 이루고 있다         | 김원수       | 바른법연구원 |
| 8  | 불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 이일야       | 불광     |
| 9  |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상태         | 천시아       | 젠북     |
| 10 |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계의 보배구슬         | 김성철       | 오타쿠    |

### 밀인사 교도



# 강송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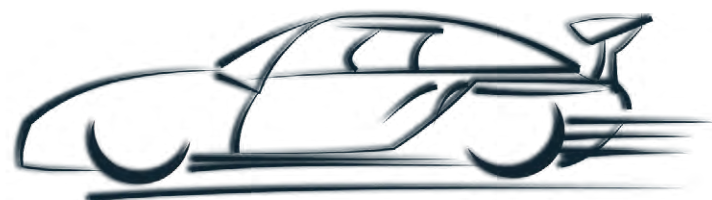
## 대표 김태종

- ☑ 자동차정비 일체
- ☑ 사고, 보험수리 대행
- ☑ 정기, 종합검사 대행

Tel. 031)906-7962

Fax. 031)906-7965

Mobile.010-3161-795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73번길 7-4 (백석동 1249-1)



# UN평화특구 홍보곡 ‘평화의 씨앗을 뿌려’ 선정

운천사 부림합창단 박건우 지휘자 작사·작곡



운천사 부림합창단 박건우 지휘자(좌)가 UN평화문화특구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했다.(우)



“6.25로 인해 분단된 조국의 슬픔과 유엔 참전 용사들의 명복을 빌고,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화를 지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노랫말과 곡을 썼습니다.”

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단장: 조정애) 지휘자 겸 가수 박건우 씨가 작사·작곡을 한 노래 ‘평화의 씨앗을 뿌려’가 UN평화문화특구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또 이번 수상으로 이 노래는 UN평화문화특구 홍보곡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박 씨는 올 가을에 개최될 유엔세계평화콘서트(부제: 평화의 씨앗을 뿌려)의 기획 단장을 맡은 등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콘텐츠 심사에 제출한 음원은 부림합창단의 노래 녹음본이 포함되어 있어 지휘자와 부림합창단이 범음포교를 위해 정진해온 노력의 결과로도 의미가 크다.

박건우 씨는 오랜 총지교도로서 지난 2014년도

부림합창단 창단부터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연꽃잎’, ‘부처님 마음’, ‘우리가 만나면’ 등의 노래를 직접 작사·작곡하여 불교총지종 부산KBS 통일음악예술제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제에서 단원들과



자료사진=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

함께 꾸준한 곡 발표를 해왔다. 또 화령 정사 가사에 박건우 씨가 곡을 붙인 ‘어머니 관세음’, ‘마하비로자나부처님’, ‘저랑을 건넌다네’ 등과 이번 수상 곡 ‘평화의 씨앗을 뿌려’가 포함된 음반 제작을 위해 단원들과 혼연일치가 되어왔다.

박건우 씨는 ‘오륙도 패밀리’, ‘영도다리랑’, ‘오마이리브 용두산’ 등 이미 정평이 나있는 작사·작곡가로서 부산지역에서 내로라하는 가요제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해왔다. 특히 2013년도 부산시민의 날 행사 총 기획 및 공연을 시작으로 제 1회 태종대 등대의 봄 음악회 총 기획 및 공연을 연 행사 전문가로 부산 대중음악 예술인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만든 노래 ‘미얀마의 봄(Everything will be OK)’이 현재 미얀마에 널리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노래’, ‘때가 되면’ 곡을 발표했다.

## 강순란 교도, 만다라 조성에 회사



진주 화음사 신정회 강순란 회장은 지난 6월 14일 중원사에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만난 자리에서 중원사 서원당 만다라 조성을 위해 써달라고 회사금을 전했다.

## 관성사, 사회복지 공헌 표창

관성사(주교: 인선 정사)가 지난 4월 26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로부터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복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패를 받았다. 지난해 종로구청에 이어 두 번째다. 관성사는 해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명의로 교남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왔으며, 올해 성금은 ‘2021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 총/지/문/답 ⑩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

## 불교총지종 종명(宗名)

옛날 신라시대에도 총지종이라는 다라니밀교종이 있었다. 그 종파는 해통국사가 당나라에 들어가 선무와 삼장으로부터 법을 받아 세웠던 종파로서 신인종, 유가종과 더불어 밀교종으로 매우 번성하였다.

종단의 종명 ‘불교총지종(佛敎總指宗)’의 ‘총지(總指)’는 총지(總持)와 지도(指導)의 합성어로 총지는 다라니 즉 진언이라는 뜻이다. 본 종

단은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하며, 이 육자진언을 설한 『대승장엄보왕경』을 소의 경전으로 삼아 준제관음법과 육자대명왕진언으로 교화하는 총지밀교종단이다. 따라서 총지밀교라는 말은 다라니밀교를 뜻한다.

지도라는 말은 중생들에게 밀교의 비법을 지도하여 즉신성불과 가지성취법을 터득하게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밀교의 비법은 교단의

스승인 아사리가 특수한 지도법으로 전하는 것이며, 의궤법 또한 엄격한 지도하에 전해진다.

이처럼 불교총지종은 다라니비법으로 중생을 지도하는 밀교종단이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수만 가지 사물과 이치를 품고 있는 다라니로써 법신 대일여래의 당체설법을 증득케 하여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밀교 종흥의 종단의 의미로 ‘불교총지종’이라고 명명되었다.

### 총지스케치



##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                       |
|----------------|-----------------------|
| 공식불공           | 매일 오전 10시             |
| 자성일불공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 월초불공           | 매월 첫째 주 7일간           |
| 새해불공           |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
| 종조탄신일          | 매년 양력 1월 29일          |
|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
| 부처님오신날         | 매년 음력 4월 8일           |
|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
| 해탈절(우란분절)      | 매년 양력 7월 15일          |
| 종조멸도절          | 매년 양력 9월 8일           |
| 창교절            | 매년 양력 12월 24일         |

|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                                                                                                                                                                                                |
|-----------------|------------------------------------------------------------------------------------------------------------------------------------------------------------------------------------------------|
| 새해불공            |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
|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제주경』에 의한 진언 ‘옴출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
| 월초불공            |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
| 자성일 불공          |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       |                               |                 |
|-------------|-------|-------------------------------|-----------------|
| 사원명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통리원         | 06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 (02)552-1080-3  |
| 수원원         | 28065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 (043)833-8133   |
| 동해중학교       | 4775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 (051)556-0281~2 |
| 사회복지재단      | 06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3452-7485   |
| 서울,경기교구     |       |                               |                 |
| 관성사         | 0316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 (02)736-0950    |
| 밀인사         | 031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 (02)762-1412    |
| 법천사         | 1338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해대원동)  | (031)751-8685   |
| 벽룡사         | 0870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 (02)889-0211    |
| 시법사         | 21358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 (032)522-7684   |
| 실지사         | 0116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 (02)983-1492    |
| 정심사         | 02137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 (02)491-6888    |
| 지인사         | 2143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심정동)        | (032)528-2742   |
| 총지사         | 06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 (02)552-1080    |
| 충청,전라교구     |       |                               |                 |
| 만보사         | 35045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 (042)255-7919   |
| 법황사         | 61636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 (062)676-0744   |
| 법정사         | 28485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 (043)256-3813   |
| 흥국사         | 55049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자동1가) | (063)224-4358   |
| 중원사         | 28065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 (043)833-0399   |
| 대구,경북교구     |       |                               |                 |
| 개천사         | 41958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 (053)425-7910   |
| 건화사         | 38009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 (054)761-2466   |
| 국광사         | 38145 |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 (054)772-8776   |
| 단음사         | 38843 |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 (054)333-0526   |
| 선립사         | 3754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 (054)261-0310   |
| 수계사         | 38048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 (054)745-5207   |
| 수인사         | 37705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 (054)247-7613   |
| 승천사         | 38129 |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 (054)746-7434   |
| 제석사         | 41237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 (053)743-9812   |
| 부산,경남교구     |       |                               |                 |
| 관음사         | 4726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 (051)896-1578   |
| 단향사         | 53075 |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 (055)644-5375   |
| 덕화사         | 46547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 (051)332-8903   |
| 밀행사         | 50427 |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4길 6 (내이동)         | (055)354-3387   |
| 법성사         | 48817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 (051)468-7164   |
| 삼밀사         | 49060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 (051)416-9835   |
| 성화사         | 48959 |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 (051)254-5134   |
| 실보사         | 44452 |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 (052)244-7760   |
| 운천사         | 51257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 (055)223-2021   |
| 일상사         | 50409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 (055)352-8132   |
| 자석사         | 48245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 (051)752-1892   |
| 정각사         | 4775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9 (명륜동)      | (051)552-7901   |
| 화음사         | 52707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 (055)755-4697   |
| 동해사         | 4775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 (051)556-028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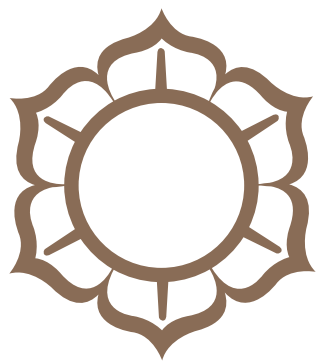


공모 사료

- 총지종 역사적 가치가 담긴 기록물
- 총지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장품
- 문서, 사진, 동영상, 책자 등

공모 방법

- 접수 및 문의: 종보실
- Tel: 02-552-1080
- 보낼 곳: 우편 및 이메일
- E-mail: news@chongji.or.kr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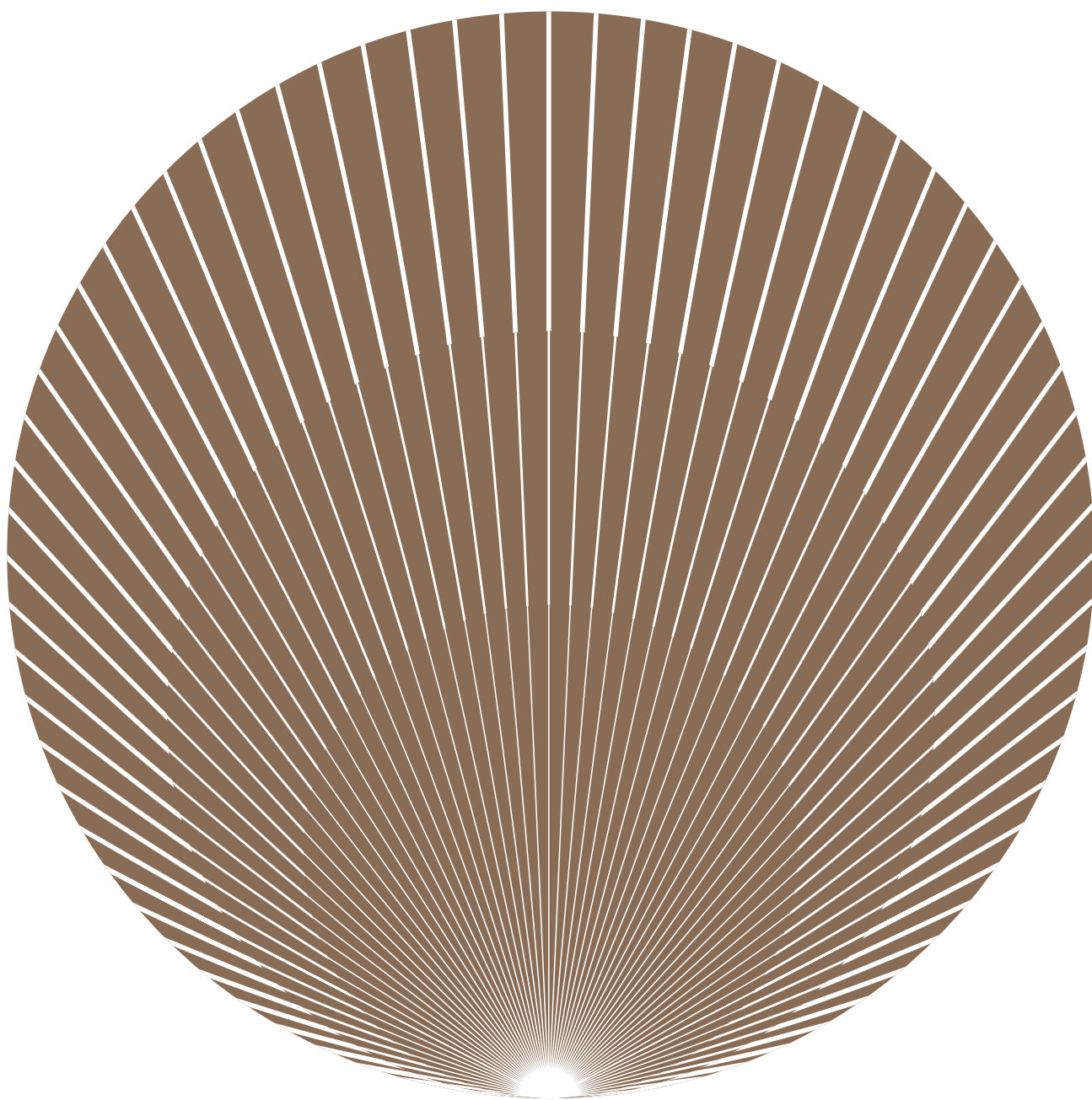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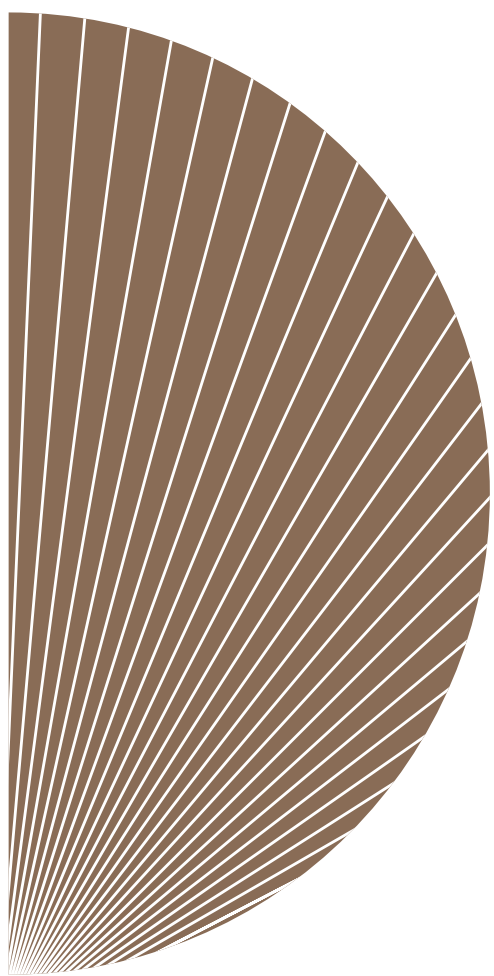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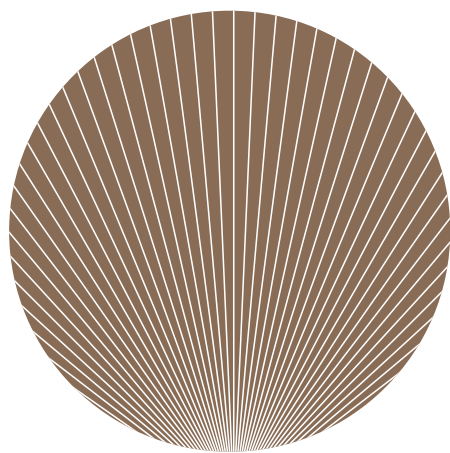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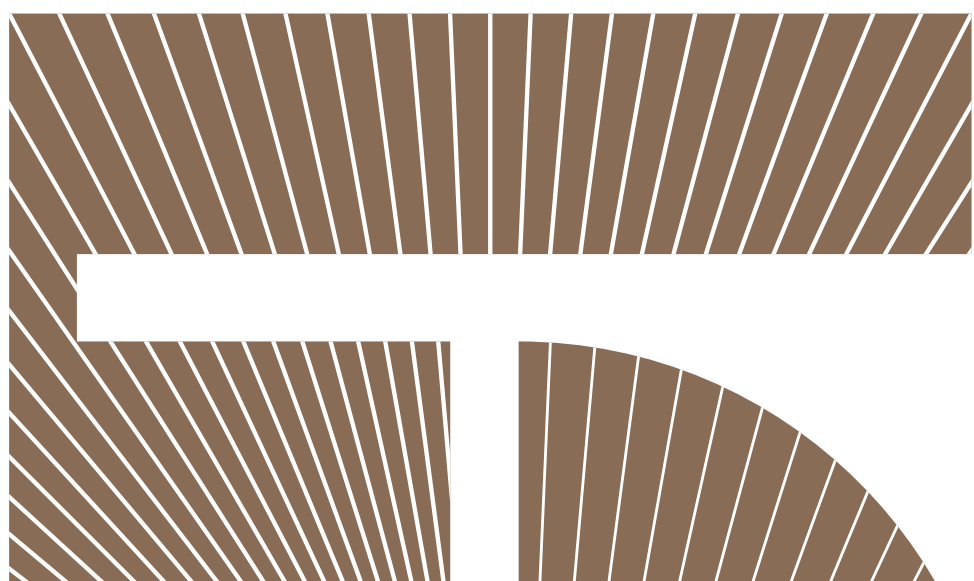
# 불교총지종 50年史 편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역사가  
하나 둘씩 모여,  
총지종 50년이  
만들어집니다.

總  
指  
指

총지의 역사를  
찾습니다

歷  
史



마감 일정

## 2021. 08. 31.



불교총지종